

## 커버스토리

서울대공원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 일반적으로 돌고래는 야생에서 하루 50km 이상을 헤엄친다. 좁은 물장은 돌고래에게 '억압'이나 다름없다. 해양포유류학자들은 수족관 돌고래의 재활 방법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돌고래를 야생으로 돌려 보내자는 주장은 단순한 낭만주의만은 아니다. 이번 돌고래 재판은 우리 사회의 환경인식과 동물복지 수준을 가능해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돌고래들의 고단한 '밥벌이'를 볼 수 있다.



## 어망에 걸렸지...죽은 생선을 받았어...묘기를 배운 거야

제돌이는 원래 '제이비디(JBD) 09'로 불렸다. 2007년 11월4일, 제주 앞바다를 한참 헤엄치고 있는데, 고래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배를 타고 다가와 사진을 찍었다. 그때 제돌이의 식별 번호가 붙었다. 9번째 발견된 제주(Jeju) 남방큰돌고래(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2009년 5월1일,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무언가에 들어왔는데 나갈 수 없었다. 그물에 걸린 것이다. 제돌이 나이 8~9살(추정) 때였다. 사람들이 다가와 신경안정제를 주사하고 안대로 눈을 덮었다. 한참 있다가 눈을 떠보니 수조 안이었다. 그때부터 제돌이의 삶터는 제주도 연안 418km의 바다에서 좁은 풀장으로 바뀌었다.

제돌이는 야생성을 버리는 순치훈련을 받았다. 밥을 굶기면서 죽은 생선을 먹도록 길들이는 것이다. 오징어를 좋아하던 제돌이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다. 개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를 굶으면 죽은 생선을 자유롭게 먹는다.

7월20일, 다시 제돌이에게 안대가 씌워지고 주사가 놓였다. 이번에 갠 곳은 서울대공원이었다. 박창희 서울대공원 조련사가 말했다. "처음 왔을 땐 죽은 생선을 먹을 정도만 훈련돼 있었죠. 체구가 작고 잔 상처가 많았어요."

남방큰돌고래는 어망과 어구가 많은 연안에 살기 때문에 몸에 잔 상처가 많다. 그때 서울대공원에는 이미 제주도에서 잡혀 온 금등이(20살)와 대포(19살)가 쇼를 하고 있었다. 금등이는 1999년 3월, 대포는 2002년 3월에 서울대공원에 왔다. 대포는 어릴 적 제돌이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제돌이는 대포를 따라 묘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제돌이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섰다. 할 줄 아는 동작이 없었지만, 둥근 머리와 웃는 얼굴, 미끈한 몸매만 봐도 사람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에도 제돌이는 온통 먹이 생각뿐이었다.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등 토막 친 생선을 먹을 기회는 하루 5번, 그러니까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위해 훈련할 때뿐이었다. 조련사들은 제돌이가 점프를 하고 노



지난달 22일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공연이 끝나고 수족관에서 쉬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대포, 금등이. 다가가자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물려들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 1월25일 제주에서 강연회를 마친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이 남방큰돌고래 야생방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 점프와 인사, 홀라후프 돌리기 공놀이와 노래 부르기...

## 조련사 신평 달리기도 하지

## ‘차세대 에이스’라 띄워주지만 부리 끝은 별장게 벗겨져 있어

래를 부를 때만 먹이를 줬다. 제돌이는 한 번에 1.5kg씩 하루 7.5kg를 먹었다.

제돌이가 공연에 필요한 동작을 다 익힌 건 동물원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난 2010년 여름이었다. 조련사들은 축하하며 제돌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서울대공원은 장기적으로 제돌이를 일본에서 들여온 태지(9살)의 뒤를 잇는 ‘차세대 에이스’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제주에서 온 돌비와 캐돌이가 2008년에 폐렴으로 죽은 데다 노쇠한 금등이와 대포를 대신할 스타는 제돌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돌이는 겨울에는 매일 2번씩, 여름과 주말에는 5번씩 점프와 인사, 홀라후프 돌리기,

공놀이, 노래 부르기를 하고 있다. 수중공연이 있는 여름철에는 스노보드 자세로 올라탄 조련사를 싣고 빠르게 수면 위를 달리기도 한다. 공연과 공연 사이엔 가로 12m, 세로 5m, 깊이 3m의 수족관에서 지낸다. 사람들이 퇴근하는 밤이면 공연용 풀장에 나가 금등이, 대포와 경주를 벌인다. 가끔 서로 물어뜯어 제돌이 몸에는 길게 찢긴 이빨자국이 있다. 시멘트 수조 벽에 긁혀 부리 끝도 별장게 벗겨졌다.

지난해 7월 남방큰돌고래의 불법 포획과 수족관 공급이 알려진 뒤, 이따금 서울대공원 앞에서는 돌고래를 풀어주려는 사람들의 기자

회견과 1인시위가 열렸다. 그 와중에도 제돌이는 무심하게 점프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지난달 22일 오후 3시 공연에서도 제돌이는 무대 위로 올라와 꼬리지느러미를 몸통 쪽으로 힘껏 당겨 올렸다. 고등어 한 조각이 날아왔다. 홀라후프를 부리로 열심히 돌리고 한 조각을 또 받아먹었다. 공연이 끝날 땐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 수중발레 선수처럼 머리를 물속에 박은 채 꼬리지느러미를 까딱까딱하는 인사를 세 번 해야 하는데, 두 번밖에 하지 않고 물밖으로 나온 것이다. 입을 벌려봤지만 날아오는 생선은 없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 점프하다 잘못 떨어져 죽고 새끼낳은 다음날 공연 투입

## 퍼시픽랜드 전직 직원들의 증언

“어미가 천장에 달린 불 터치를 하려고 번쩍 뛰었어요. 그런데 도약 지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바로 아래 새끼가 보이자 어미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피했어요. 하필 떨어진 곳이 공연장 무대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공연장을 울렸죠.”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일했던 직원 7씨는 2004년께 벌어진 사고를 떠올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관중들은 웅성거렸고 곧바로 막이 내려졌다. 돌고래의 입에선 피가 줄줄 새어나왔다. 어미는 얼마되지 않아 새끼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현재 퍼시픽랜드엔 남방큰돌고래 7마리가 살고 있다. 6마리는 2009~2010년 사이 제주 앞바다에서 잡힌 개체들이고 나머지 한마리는 2005년에 태어난 개체다. 지난달 24일 제주 퍼시픽랜드에 갔을 때, 7마리 가운데 기분이, 해순이, 춘삼이, 풀이가 하루에 네번씩 공연을 벌이고 있었다. 사람을 태우고 대포처럼 공중에 쏘아 올리는 묘기를 발인 풀이를 가리키며 조련사가 “다섯살밖에 되지 않은 새끼”라고 소개하자, 500명의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서울대공원의 시설은 제주 퍼시픽랜드에 비하면 훌륭한 편이다. 퍼시픽랜드 전직 직원 7씨는 “공연용 풀장 안쪽 대기용 풀장은 육조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 보니, 가로 5m 세로 4m쯤 되는 풀장에 공연에 나오지 않은 3마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뭘 수도 헤엄칠 수도 없는 크기다.

이 돌고래들 또한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됐다. 전직 직원 7씨도 여기에 한번 따라간 적이 있다. “돌고래가 그물에 걸렸다고 어민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달려가요. 통통배를 타고 정치망에 가 보면, 으레 돌고래가 맴돌고 있죠. 그럼 다이빙복을 입고 들어간 뒤 그물을 천천히 줄여서 잡아요.”

그 뒤 지느러미가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을 낸 천으로 돌고래를 감싸고 들것에 실어 화물트럭에 싣는다. 이동 중에 물은 계속 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과사해 죽을 수 있다. 퍼시픽랜드에 들어온 돌고래는 일정 기간 다른 육조에 격리 수용된다. 죽은 생선은 받아먹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 며칠은 강제로 먹인다. 7씨는 “공연을 하느라 피곤하고, 죽은 생선을 먹기 때문에, 매일 게브랄티(간장약)와 아스코르빈산(비타민제)을 준다”며 “심지어 응포는 새끼를 낳고 이틀날 공연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동안 한 번밖에 수의사를 못 봤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야생방사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퍼시픽랜드는 돌고래를 두 차례 제주 앞바다에 풀어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서 잡아 온 희망이와 일본에서 사 온 소망이다. 7씨가 말했다. “희망이가 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바다에 나가서 희망이를 풀어줬죠. 몇 번 쳐다보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잘 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가 자유로워 보였어요.” 제주/남종영 기자 hndy@hani.co.kr

IOPE 스킨리포트

이제, 나이에 지지 않아요  
진화된 레티놀이  
5가지 주름을 관리하니까

5가지 주름케어로 링클케어, 리얼이 되다  
☒ 깊은 주름 ☒ 표정 주름 ☒ 모공 주름 ☒ 미세 주름 ☒ 속 주름

ARITAUM  
www.aritaum.com

ARITAUM은 아리타움 브랜드 - 신제품 출시 02-423-3464 www.iope.co.kr

레티놀 에이지 콜렉터  
IOPE

NEW  
수용성 레티놀 복합 성분  
40ml / 3.3 FL. OZ.

레티놀 에이지 콜렉터  
IOPE

☒ Wrinkle Care ☐ Whitening ☐ Lifting ☐ Anti-Aging ☐ Pore Care ☐ Trouble Care ☐ Sun Care ☐ Hydrating